



담임목사 | 안영수 교육목사 | 임현철
 시무 장로 | 최광희 양재선 김유자 심현태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Fort Wayne 300 W. Wayne St. Fort Wayne IN 46802
www.firstpresfortwayne.org

2024년 12월 15일
오전 11시

인도 | 안영수 목사
반주 | 안병국 청년

나아옴 [Approach]

전 주 [The Prelude] _____ 반 주 자

개회찬송 [Opening Hymn] —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Come, Thou Long expected Jesus) - 다 같 이

예배부름 [Call to Worship] _____ 교독문 118번 (구주강림4) _____ 인 도 자

인도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 같이 나타나도록

One: For Zion's sake I will not keep silent, for Jerusalem's sake I will not remain quiet,

다같이: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All: Till her righteousness shines out like the dawn, her salvation like a blazing torch.

인도자: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것이요

One: The nations will see your righteousness, and all kings your glory.

다같이: 너는 여호와와 입으로 정하실 새이름으로 일컬음이 될것이며

All: You will be called by a new name that the mouth of the Lord will bestow.

인도자: 너는 또 여호와와 손의 아름다운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것이라

One: You will be a crown of splendor in the Lord's hand, a royal diadem in the hand of your God.

다같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All: Oh, that you would rend the heavens and come down, that the mountains would tremble before you!

인도자: 불이 썩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하시며 이방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One: As when fire sets twigs ablaze and causes water to boil, come down to make your name known to your enemies and cause the nations to quake before you!

다같이: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All: For when you did awesome things that we did not expect, you came down, and the mountains trembled before you.

(다같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 었나이다.

(All): Since ancient times no one has heard, no ear has perceived, no eye has seen any God be sides you, who acts on behalf of those who wait for him.

사도신경 [Affirmation of Faith] _____ 다 같 이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 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 into heaven, and sitteth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참회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_____ 다 같 이

(아래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다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대강절이 깊어가는 이 때, 지난 한 주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돌아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는 아직 죄된 생활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세상 즐거움으로 우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용서의선언 [Assurance of Pardon] _____ 인 도 자

응답찬송 [Response Hymn] _____ 이와 같은 때엔 (In Times Like These) _____ 다 같 이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드네 손 높이드네 주님께

In times like these, I sing a song, A song of love to the Lord.

In times like these, I lift my hands, I lift my hands to the Lord.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Lord,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Lord, I love You.

평화의 인사 [Sharing Peace] _____ 다 같 이

중보기도와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_____ 김현숙 집사

말 씬 [The Word]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_____ 빌립보서 2: 5-11 _____ 조정일 집사

설교 [The Sermon] _____ "순종은 종이 되는 것이다" _____ 안영수 목사

찬양과 봉헌 [Offering and Offertory] _____ 봉헌위원 : 최광희 장로, 앤 권사

내일 일은 난 몰라요 (I Don't Know About Tomorrow)

1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 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I don't know about tomorrow; I just live from day to day.

I don't borrow from it's sunshine For it's skies may turn to grey.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곤해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I don't worry o'er the future, For I know what Jesus said.

And today I'll walk beside Him, For He knows what is ahead.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불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Many things about tomorrow I don't seem to understand

But I know who holds tomorrow And I know who holds my hand.

2절: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Every step is getting brighter As the golden stairs I climb;

Every burden's getting lighter, Every cloud is silver-lined.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There the sun is always shining, There no tear will dim the eye;

At the ending of the rainbow Where the mountains touch the sky.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Many things about tomorrow I don't seem to understand

But I know who holds tomorrow And I know who holds my hand.

3절: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I don't know about tomorrow; It may bring me poverty.

But the one who feeds the sparrow, Is the one who stands by me.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And the path that is my portion May be through the flame or flood;

But His presence goes before me And I'm covered with His blood.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Many things about tomorrow I don't seem to understand

But I know who holds tomorrow And I know who holds my hand.

봉헌 기도 [Prayer of Dedication] _____ **인 도 자**

교회소식 [Announcement] _____ **안영수 목사**

축도 및 폐회 [Benediction and Postlude] _____ **안영수 목사**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O, Lord my God!)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Philippians 2: 5-11)

5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6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8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9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10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11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5 Let the same mind be in you that was in Christ Jesus, 6 who, though he was in the form of God, did not regard equality with God as something to be exploited, 7 but emptied himself, taking the form of a slave, being born in human likeness. And being found in human form, 8 he humbled himself and became obedient to the point of death— even death on a cross. 9 Therefore God also highly exalted him and gave him the name that is above every name, 10 so that at the name of Jesus every knee should bend, in heaven and on earth and under the earth, 11 and every tongue should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Lord, to the glory of God the Father.

알 리 는 말 씀 (Announcements)

1. 감사

◇ 예배를 위한 봉사와 점심친교, 성탄절 발표준비로 수고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오늘 예배 안내

- ◇ 오늘은 예수님 강림을 기다리는 대강절(Season of Advent) 세 번째 주일입니다.
- ◇ 오늘은 푸드 도네이션 주일입니다. 이 음식은 포트웨인 다운타운 지역의 3곳의 푸드뱅크로 보내집니다.
- ◇ 오늘 예배 후 친교실로 이동하여 점심 친교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초대되었으니 참여해주세요.
- ◇ 오늘 점심친교 이후, 여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 ◇ 오늘 점심 친교를 마친 후 성탄절 발표 준비를 위해 운영위원회 (1층 채플), 여성 성탄발표팀 (요크룸), 교회학교 (Youth부서실)는 각 장소에 모여 성탄절 발표회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 주 (12월 22일) 성탄축하 예배 안내

- ◇ 다음 주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먼저 1부로 예배를 드린 후에 2부 순서로 성탄축하 발표회, 산타클로스의 선물 전달 등 다양한 순서들로 성탄을 축하합니다.
- ◇ 다음 주 성탄 축하예배에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로 성탄절 복장으로 예배에 오세요.
- ◇ 예배후 식사는 팻력(공동식사)으로 진행됩니다.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제공됩니다. 가족과 이웃, 주변의 한인들을 초대하셔서 예배에 함께 참여해주세요.
- ◇ 다음 주일 점심친교 시간에는 성탄절 선물 교환 시간이 있습니다. 15-18불 사이의 선물을 준비하여 예배에 참석하여 주세요.

4. 아래의 내용과 일정을 참조하여 주세요.

- ◇ 1월에 강단 꽃을 봉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목회자에게 알려 주세요. 강단 꽃 장식 비용은 50불입니다. 헌금 시간에 이름과 함께 메모 란에 "Chapel Flowers" 라고 적어 주시고 헌금과 함께 드리면 됩니다.
- ◇ 주일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실 때에는 헌금봉투에 "영어"로 이름을 적어주세요.
- ◇ 크리스마スイ브 축하 예배: 24일(화) 저녁 5시와 밤 10시에 미국 회중 주최로 개최됩니다. 특별히 저녁 5시 예배는 오케스트라가 캐롤을 연주합니다. 가족과 함께 많이 참여해주세요.

12월 예배 봉사자			
날짜	기도	성경봉독	촛불점화
12/15	김현숙	조정일	앤, 최광희
12/22	조정일	김현주	앤, 최광희
12/29	김은영	박남세	앤, 최광희